

어린이집 부모의 성인애착유형이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연구

신동열*, 신수원**
대한 신학대학원 대학교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ult attachment types of daycare center parents

Dong-yeol Shin*, Soo-won Shin**

Korean Theological Seminary,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부모는 자녀와 애착형성을 이루기보다 부모가 갖고 있는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영유아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것으로 유추되어, 영유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 300명(부 150명, 모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한 후, 자료가 누락된 43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부적관계로 검증되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부적관계로 검증되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현상학적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안녕감, 영유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it is inferred that infants and toddlers attending daycare centers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ir parents' adult attachment type. For this study, a total of 247 copies of the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43 copies where data were omitted after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300 parents (150 parents and 150 mothers) of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al adult attachment, self-recovery elastic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imulate normality statisticall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elf-recovery elasticity was verified 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verified 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 follow-up study, we propose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influence of parents' adult attachment on self-recovery elasticity, parental attachment,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Key Words Parents, adult attachment,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infants and toddlers.

Received 04 Jan 2022, Revised 07 Jan 2022

Accepted 13 Jan 2022

Corresponding Author: Shin, Dong Yeol
(Korean Theological Seminary, University)
Email: counme2@gmail.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애착이론은 선행연구들과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을 강조한 Bowlby(1969/1982, 1973, 1980)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들이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다 (서해인, 2020).

애착은 Main(1995)의 영아기 애착 유형과 성인기 애착 유형이 최소 50%에서 최대 77% 수준까지 일치하는 안정성을 나타내며 양육자와 아동 간의 애착 유형은 70% 수준으로 일치한다고 함으로써 세대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영유아들은 부모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 성인애착과 관련 선행연구(정은빈, 황금빛, 신윤희, 김윤옥, 진혜민, 2021)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마음챙김과 자기비하, 양육행동을,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지성애, 심재연, 정진화, 오세경, 2017; 노현호, 2016)는 어머니 성인애착이 유아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라고 하였다.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태진우, 남종호, 2021)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며, (박미경, 2016)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상관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애착은 전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영향력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연구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계를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부모 성인애착 유형이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알고,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기여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 탄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몇몇 특정인과의 근접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성이라 정의하였다(Berman & Sperling, 1995).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내적작동모델이 전 생애 동안 작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인기 애착 면담(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고안하였으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애착 유형을 ‘불안’과 ‘회피’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Ainsworth(1973)는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를 통해 안정애착, 저항애착, 회피애착 세 가지로 애착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 애착 유형의 패턴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두 개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장에스더(2021)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애착불안은 자기표상과 애착회피는 타인표상과 관련이 된다고 보았으며, 김준미, 김은하(2019)는 애착의 질을 하나의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차원으로 나누어 그 정도에 따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높을 경우 불안정한 애착으로 보며, 이는 어려서 형성된 애착의 특성으로 성인이 되어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회피애착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회복탄력성

Heinzew(1995)는 회복탄력성을 한 개인에게 닥친 상실 및 불운으로부터 쉽게 회복시키거나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며, 대처자원을 잘 가동시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정의하였다(Heinzew,1995).

회복탄력성의 최초연구는 1970년으로 위협집단의 아

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단연구(Garmezzy, 1971; Rutter, 1979; Werner, Smith, 1982)에서, 높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잘 성장하는 현상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했으며 (김은희, 2021), Reivich와 Shaté(2003)는 회복탄력성은 낙관성,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 충동통제력, 정서(감정)조절력, 원인분석력을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본인 스스로 억제, 현재 고통을 극복하여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긍정성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통제력과 이들을 극복하며 긍정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자아 안녕의 긍정성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2.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Diener,2000).

어영란 (2019)은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회복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Ryff(1989)는 심리적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그대로 사용하고, 보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안녕감 모델을 자아와 대인관계, 환경, 삶, 성장등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Emon&Colbyr(1995);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환경외에도 삶의 목표, 자긍심, 자기통제력 등 개인 내부의 심리작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등을 심리적 안녕감의 요소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이론적 배경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특성과 관계 분석 연구를 하여, 확장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부모 300명(부 150명, 모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한 후 자료가 누락된 43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성인애착의 척도를 성인애착 척도는 Brem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등 (2000)이 개정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개정판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을 김성현(2004)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정주희, 2019). 본 척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하위요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 도구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애착불안	2,6,8*,10,12,13,14,15,17,20,	18	.92
	21,22,23*,24,25,26,31,36		
애착회피	1,3*,4,5*,7*,9*,11,16,18*,19	18	.88
	27*,28*,29*,30*,32*,33*,34*,35		
1 ~ 36		36	.92

3.2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회복탄력성의 척도는 레이비치와 샤페(Reivich & Shatte, 2003)가 개발하고, 김주환(2011)이 한국실정에 맞게 소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에서 이종하(2012)가 사용한 것 중 통제력, 긍정성만 2가지만을 하위요인으로 사용한 총18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서현석, 2004).

회복탄력성의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97로 <표 2>과 같다.

회복탄력성 도구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회복탄력성 설문지 구성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통제력	1,2,5,8,10,12,14,16,17	9	.790
긍정성	3,4,6,7,9,11,13,15,18	9	.880
전체		18	.897

3.3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PWBS)의 척도를 Ryff & Dinner(1989)가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 개발하였고, 최초120문항이었으나, 18개 문항 5점 척도로 수정되었다. 그 후, 김혜원과 차경호, 김명소(2001)가 수정, 보완하여 18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기혼여성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제외한 13개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재훈, 2018).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22로 <표 3>과 같다.

<표 3> 종속변인 측정문항의 신뢰성

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심리적 안녕감	13	4-1,4-2,4-3,4-4,4-5, 4-6,4-7,4-8,4-9,4-10,4-11,4-12,4-13	.922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 것으로 확인하였다.

4.1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

		M	SD	왜도	첨도	범위
성인 애착	애착불안	32.91	7.60	.23	.56	18~72
	애착회피	40.78	5.96	.01	.91	18~72
	전체	73.70	10.81	-.34	.12	36~144
회복 탄력성	통제력	33.52	4.67	-.02	-.20	9~45
	긍정성	34.16	5.38	-.30	.04	9~45
	전체	67.68	9.24	-.07	-.15	18~90

심리적 안녕감	전체	46.93	7.14	.92	.63	13~65
---------	----	-------	------	-----	-----	-------

<표 4>과 같이 부모 성인애착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32.91~40.78, 표준편차는 5.96~7.60, 왜도는 .01~.23, 첨도는 .56~.91의 분포를 이루었다. 자아회복탄력성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33.52~34.16, 표준편차는 4.67~5.38, 왜도는 -.30~-0.02, 첨도는 -.02~.04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46.93, 표준편차는 7.14, 왜도는 .92, 첨도는 .63의 분포를 이루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4.2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분석

부모성인애착,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애착불안	애착회피	성인애착 전체
통제력	-.40**	-.29**	-.44**
긍정성	-.45**	-.33**	-.50**
회복탄력성 전체	-.46**	-.34**	-.51**

** $p < .01$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모 성인애착의 애착불안은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r = -.45, p < .01$)과 통제력($r = -.40, p < .01$) 모두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r = -.33, p < .01$)과 통제력($r = -.29, p < .01$) 모두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93, VIF가 1.07로 나타났고, Durbin-Watson의 값이 1.85로 나타남으로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표 6〉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R ²	adj R ²	F
회복 탄력성	(constant)	98.846	3.671		26.929			
	애착 불안	-.492	.068	-.405	76	.270	.264	804
	애착 회피	-.367	.086	-.237	55			

*** p < .001

〈표 6〉과 같이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 변량의 27.0%를($F=46.804, p<.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애착불안($\beta=-.405$), 애착회피($\beta=-.237$) 모두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부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 성인애착이 유아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4.3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분석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성인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애착불안	애착회피	성인애착 전체
심리적 안녕감 전체	-.22**	-.25**	-.29**

** p < .01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r=-.2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성인애착의 애착

불안($r=-.22, p<.01$)과 애착회피($r=-.25, p<.01$)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을 어느 정도 예측해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93, VIF가 1.07로 나타났고, Durbin-Watson의 값이 1.89로 나타남으로써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표 8〉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R ²	adj R ²	F
심리적 안녕감	(constant)	60.91	2.894		21.048			
	애착 불안	-.141	.053	-.164	-2.638	.090	.083	6
	애착 회피	-.233	.068	-.213	-3.431			
					3			

** p < .01, *** p < .001

〈표 8〉과 같이 성인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 변량의 9.0%를($F=12.586, p<.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애착불안($\beta=-.141$), 애착회피($\beta=-.233$) 모두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부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을 연령, 시간적으로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고, 오랜시간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와 애착형성보다는 부모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영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되어, 부모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검증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의 일반적 특성을 검증하였으며,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총점 및 하위요인 간에 부적관계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아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총점 및 하위요인 간에 부적관계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에 영향,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으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및 성인애착에 나타나는 구성요인 중 자아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으로 연계되는 질적 연구 분석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김은희(2021), “행복코칭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2] 서현석(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후기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3] 서해인(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 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4] 신수정(2017),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5] 장에스터(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긍정적 자기자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6] 어영란(2019),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고통감내력과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국내석사.
 [7] 정주희(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비하, 탈중심화, 반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원대학교.
 [8] 태진우, 남종호(2021), “중년남성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9]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S.(1973). Caldwell & H. N. Ricciuti(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11]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5).
 [12] Reivich, K. & Shatt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13] Heinzer, M. M. (1995), Loss of a parent in childhood: attachment and coping in a model of adolescent resilience. Holistic Nursing Practice, 9(3).
 [14] Main, M. (1995), Attachment: Overview, with implications for clinical work.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407-474). Hillsdale, New Jersey.: Analytic Press.
 [15]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801.

신 동 열 (Dong-Yeol Shin)



- 2022년 01월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교수
- 2010년 02월 : 건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졸업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등
- E-Mail : counme2@gmail.com

신 수 원 (Soo-Won Shin)



- 2022년 01월 현재 : 신곡 어린이집 원장
- 2020년 03월 ~ 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 재학
- 2013년 02월~2015년 02월 :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졸업
- 2007년 03월~2009년 08월 : 숭실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졸업
- 1991년 03월~2007년 0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 학사 졸업
- 관심분야 : 상담심리치료, 영유아, 애착, 부모
- E-Mail: sswsmaill7@hanmail.net